

# 2011.3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1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1.3.30	대전MBC 대회의실	10/11	6	

○시청자위원 불참자(1명) 명단: 여운철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고대석 사장, 강덕원 경영사업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서영석 보도국장, 김경환 기술국장, 이상헌 전략기획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8	-	2	14	-	14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4	10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건	1건	
보도	뉴스에서 기자 스탠드업 화면에서 복장불량 또는 뒷배경에 특정 상호가 나오는 경우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선 기자들에게 단정한 복장을 당부하고 촬영화면에서 불필요한 장면 배제하도록 함.	'1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플러스> 성우나레이션은 안정적이나 진행자의 역할이 거의 없다. 멘트가 어눌하다.(김진국 위원) 어눌하다는 느낌있지만 그래서 더 신뢰감 있어 보인다.(김재영 위원)	시사플러스 진행자의 경우 진행능력의 스킬 보다는 사회적 평판을 바탕으로 둔 신뢰감으로 정해 비전문 방송인으로 선정했다. 진행능력의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하나의 주제로 30여분이 길다. '학원가의 불안한 공존'은 성매매 등 주변모습만 보여줘 공존이란 주제에 맞는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이슈화만 됐을 뿐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김진국 위원)(김경옥 위원) '대전의 전세값' 등 일부 아이템은 타 지역과의 비교없어 아쉽다. 전국을 다루면서 대전을 조명하는게 맞다. (김진국 위원)	보다 실제적인 취재와 사례소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였다. 학원가 주변모습이 많이 부각되었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향후 대안부분에도 많은 할애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시사프로그램이 확실한 대안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안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시사분석>에서 다룬 '전세대란'을 <시사플러스>에서 잇따라 다뤘다. 두 프로에서 다를만한 차별성 없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별개프로라도 동일인물의 잦은 인터뷰 반복 자제해야한다.(유치벽 위원)(김경숙 위원)	시사플러스는 3주전에 아이템을 정하고 취재하는데, 그 사안이 이슈가 되면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분석에서도 섭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두 부서에서 계속 협의하겠다.	수용
교양	<시사분석> 진행과 내용 구성이 허술하다. 질문과 토론이 걸돈다는 생각된다. 진행자와 패널이 각기 자기 말만해 종합적으로 이해 어렵다. (유치벽 위원)(안정선 위원)	원자력 안전사고 같은 전문적 주제에서 종종 지적을 받는다. 진행자, 작가, 연출 모두 심층적인 분석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수용
교양	<건강플러스>구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진료아이템을 세분화해서 다루면 좋겠다. 좀더 권위있는 전문가출연 바란다. (신현대 위원)	진료의 아이টে을 보다 세밀화해서 다루도록 준비하고 출연 교수진도 보다 경험과 권위가 있는 분으로 섭외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수용
보도	일본 원전문제는 실제 일본현지사정에 비해 언론이 너무 호들갑떠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정보와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 (방기봉 위원) 일본 방사능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호들갑떠다고 혼낼게 아니라 어떻게 풀 것인지, 국민 안심시키고 대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 지나친 전문용어사용은 자제하기 바란다. (안정선 위원)(김재영 위원)	일본 원전사고 보도에서 한국 언론이 너무 흥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보도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이 수용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수용어려울 경우 이유를 제시해야 다시 거론안된다. (김경숙 위원)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히고 있다.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전략기획 수용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보도	신문방송할 것 없이 관급뉴스가 너무 많다. 지역언론이 관급뉴스가 많아 지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김재영 위원)	가급적 관급뉴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활성,정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기타	대전MBC의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았다. 인력충원시 지역출신인재를 적극 채용해야 한다. 지역출신이 우대받을 수 있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달라.(김재영 위원)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경영 의견참고
교양	특집프로그램제작 등 대전MBC 구성원의 개별역량은 탁월하지만 너무 정형화된 포맷은 탈피해야 한다. (김재영 위원)	변화하는 시청행태를 뒤처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성 등 다양한 포맷개발에 항상 신경쓰고 있다. 좀더 노력하겠다.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학원가의 불안한 공존' 필요 없는 인터뷰로 인해 프로그램의 방향이 틀어진 듯하다.(유홍업주와의 통화내용 등) (김영광 위원)	학원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를 가감없이 알리기 위한 편집이다. 그만큼 청소년의 탈선과 유혹에 그 선이 닿아 있음을 심층소개하려는 의도였다. 향후 직접적이지 않은 인터뷰내용은 점검하도록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장애어린이 지원이나 무상급식 문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어려운 대상에 대한 복지정책을 복합적으로 다뤄줘야 할 필요있다.(김영광 위원)	무상급식 1달 같은 점검과 소외계층에 대한 계기성 보도에 노력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일본 원전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토론프로그램에서도 너무 많은 패널이 얘기하다보면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어진다. 차라리 패널 한사람이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구성해달라..(장인순 위원장)	패널 1-2명을 놓고 방송할 경우 자칫 토론이 지루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 적정한 패널 수를 고민하고 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패널 수를 줄이도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시사플러스> 학원가의 불안한 공존'처럼 해법이나 결론이 불분명한 아이템은 안 다루는게 나아 보인다.(장인순 위원장)	문제가 있음을 제대로 지적하고 법안관련 기관에서 향후 적극적인 방지책을 제정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명쾌한 해법제시를 방송사에서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고민해서 향후 법제정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해법 제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노력과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	편성 의견참고